교육학
발표논문 02
전문

#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
## - 무엇이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

**이현민**[1] 고신대 겸임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ristian worldview and education and to identify the academic challenges for an authentic Christian education. The author first provides a historical overview of how the Christian worldview was introduced and established in Korea, and then shows that the idea of a Christian worldvie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riving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movement.

Second, the author identifies the inadequacy of the idea of "education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due to the ambiguity and pre-theoretical nature inherent in the concept of worldview. He points out that worldviews, as belief systems operating at the unconscious level of the mind, cannot guide educational practices as human formative activities with a clear purpose at the conscious level. The author goes on to explain why we have difficulty with the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 by analysing the two concepts of 'worldview' and 'education'.

Finally, the author argues that we need 'competent theories of education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rather than a 'Christian worldview' and a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as prerequisites for them.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worldview ambiguity,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 I. 서론

'기독교 세계관'이란 개념이 소개된 것은 우리나라 개신교회 전체 역사에서 볼 때 그리 오래된

1)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과 겸임교수,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hm1130@daum.net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 개념은 한국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의 신앙 행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관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행태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기독교 세계관이 한국 사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친 영향중에서 가장 심원한 것은 바로 교육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란 이념에 열광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년간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 기독교 세계관은 새로운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해 꿈꾸게 했고, 그 실현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동력의 원천이었다.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이라는 이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커다란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 이념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 해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낀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정착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관한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교육이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둘째, 우리가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이라는 이념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 규명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난점의 정체와 원인에 대해 해명을 시도한다.

셋째,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라는 개념이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에 신실한 교육'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교육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 글 전체를 통해서 내가 묻는 질문은 "무엇이 우리의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라고 할 수 있다. 글을 통해 이 궁극적 대답의 작은 부분이라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Ⅱ. 세계관과 교육, 역사적 개관과 문제 제기

### 1. 1980년대: 기독교 세계관의 등장

우리나라에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때였다. 1980년 군사반란으로 신군부가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자 이에 반발하여 대학생들과 사회 각계로부터 반정부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젊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박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실제 삶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자신들이 목도하는 불의한 현실 상황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대답이 필요하였다. 그때까지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소위 "거룩한 일", 복음전도, 기도와 말씀, 예배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실천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세상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자유주의 신학에 따른 신앙을 가진 교파에서는 성경의 복음은 약자와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이 세상의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주의를 ‘방법론적’으로 차용하고 불신자들과도 연대하고자 하였다(김헌수, 1992:194-196). 현실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고자 했던 보수적 신앙을 가진 젊은 그리스도인은 이 양극단의 태도 중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 이런 진퇴양란의 상황에 빠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실천과 운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정병오, 2020:15-18).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은 IVF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1982년 겨울방학 기간 중 IVF 학사들 중 일부가 당시 서울대 법대 교환교수로 와있던 William Shaw 박사의 지도로 James Sire의 저작, *The Universe Next Door*를 함께 읽고 공부하였다. 그 공부의 결과는 Study Guide 형태로 정리되어 마스터판으로 출판되었고 각 대학의 세계관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각 대학의 IVF는 세계관에 대한 독서와 강의를 계속하였다.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IVF 산하 출판부인 IVP는 세계관 관련 외국의 도서를 왕성하게 번역, 출간하였고 이것은 세계관 운동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경향은 곧 다른 기독교출판사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관과 관련한 국내외 저자들이 쓴 다양한 저작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에는 세계관 전문 연구 모임이 발족되어 세계관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언론, 낙태와 같은 관심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세계관”이란 개념이 한국에 소개되자 곧 IVF 외에도 세계관 공부모임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81년 KAIST의 기독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시작하였다. 이 모임을 모태로 하여 1984년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가 설립되었고 본격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 연구를 시도하였다.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학문 분과별 연구모임들이 연합하여 기독교학문연구회를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대학 내에서 활발했던 이념 운동에 자극을 받아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의 차원에서 기독교적 지성을 계발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기독교적 학문의 정립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의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당시 기독지성인들은 기독교적 학문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김헌수, 1992:191-193; 조성국, 2019:327-328).

## 2. 1990년대: 기독교 세계관의 대중화와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탐색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관”이란 말은 대학생이나 대학 교육을 받은 지성인 그룹을 넘어 교회 안에서 널리 퍼져 대중화 되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이념의 확산은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역할이 컸다. 1987년 창립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전문 영역별 모임들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그동안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경제정의, 환경, 통일, 교육과 여성인권, 언론, 공명선거 등의 문제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였고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교회 안팎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 단체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시대가 안

고 있는 불의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데 헌신하기를 원했지만 이런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마땅한 틀이 없어 방황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보수적인 기독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운동의 근저에 깔린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념을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받아들였다(양승훈, 2018:22-24; 정병오, 2020:18).

1990년대 기독교 세계관 개념이 교회 안에서 대중화되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기독교 "문화선교"라는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대형 교회의 주도 아래 다양한 문화사역 팀들과 문화전문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에 의해 대중적인 문화 활동들이 기획되고 시도되었다. 이런 추세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당시 교회 안팎에서 실천되는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활동은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양희송은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모든 것을 망라하는 용어로 대중화되어 버렸다"고 표현한다(2019:16-17). 그러나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와 이해가 결여된 채 피상적 수준에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관'이란 용어가 대중화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이 원론에 머물고 각론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자기 성찰이나 실천력을 상실한 진부한 주장이 되풀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양희송, 2019:17).

1990년대 세계관 개념이 확산되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다양한 영역으로 분기될 때, 교육의 영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적 적용은 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기존의 신학 대학들 중에서 많은 학교들이 종합대학교로 규모를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3년 백석대학교, 1995년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를 분명한 정체성으로 표방하면서 개교하였다. 이들 신설 기독교 대학들은 기독교적 학문을 실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강조하였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지도자 양성의 핵심은 기독교 세계관 연구와 교육이라고 보아 학부의 전체 교양학점 중 15%에 해당하는 과목을 기독교 세계관 관련 과목으로 편성하였다(양승훈, 2018:24). 신설 대학교뿐만 아니라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기독교 대학들도 더 이상 신학이라는 학문이나 기독교 관련 학과만으로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체 학과에 공히 기독교적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으로 간주하고 세계관 관련 과목들을 강조하였다(조성국, 2019: 328).

한편,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공립학교의 교육에 대한 불만과 기독교 미션스쿨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목적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한계를 절감한 그리스도인들은 대안교육 혹은 대안학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자녀를 국가가 제공하는 공립학교 대신에 기독교적 정신이 온전하게 구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에서 교육시키고자하는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학교" 혹은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커져가는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 신생 기독교 학교들을 이전의 기독교계 미션스쿨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초기에 기독교 대안교육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현 샬롬대안교육

센터)는 자신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기독교 학교를 “일반적인 미션스쿨”이 아니라 “교육과정 및 학교의 운영 모든 면이 기독교적인 학교”로서 “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설립이념과 기독교적인 교육과정, 기독교적인 교과서, 교수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 등”을 갖춘 학교라고 규정한다(샬롬대안교육센터, 2021). 박창훈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 가입된 회원 학교 중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설립된 기독교 대안학교는 8개이며, 그 중 해외에 설립된 1개를 제외하면 국내에 개교한 학교는 7개이다. 이들 대부분 학교가 1997년 이후 개교하였다(2020:86-87).

## 3. 2000년대 이후: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운동과 그 근거로서 기독교 세계관

2000년대에 접어들면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이 더욱 왕성해진다. 이는 199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형태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도 하나의 촉진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영찬, 2007:95-97).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 가입된 학교 중 2000년대 설립된 학교는 총 40개에 이른다. 또한 2010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28개이다(박창훈, 2020:86-87). 이 수치는 기독교 대안학교 중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 가입된 학교들만 따진 것이기에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의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임경근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범주에 속하는 기독교 학교의 수를 2011년에 121개, 2016년에 265개로 집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3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토대로 2020년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직원 숫자는 약 5,000명, 학생 수는 약 20,0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2020:13). 이런 자료를 두고 볼 때, 기독교 대안학교는 지난 20년간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공교육기관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대안학교가 발생하여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현재의 상황은 해방 이후 한국 교육사에서 특이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도의 학교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대학입시와 맞물려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부실한 공교육은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해결이 난망한 난제 중 하나였고 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정부나 학계, 시민단체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학교와 차별되는 ‘대안학교’의 설립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생태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전부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주도의 공교육에 대안학교로 반응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1990년 말부터 현재까지 지난 20년간 기독교 대안학교가 태동하여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끈 요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자각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영역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은 곧 바로 우리 삶에서 교육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공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신화에 불과함을 깨닫게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 온전한 기독교 교육과 대안적 학교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깨닫게 하고 그 실현을 위해 행동하도록 만든다.

조성국은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필연적으로 기독교학교운동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네덜란드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2019:329). 세계관 개념은 네덜란드의 정치가 Groen van Prinsterer와 그의 후계자인 Abraham Kuyper에 의해서 기독교적으로 전유되었다. 이들이 주창한 사상을 따르는 소위 신칼뱅주의자들(neo-Calvinists)은 세계관 개념을 빌어서 당시 유럽 사회에 만연해 있던 시대정신으로서 인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분별하였고 교회 내 이원론적 신앙 행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곧 바로 “학교 투쟁”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네덜란드는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가 초등학교 교육을 통제하려는 학교법을 제정하였는데, 신칼뱅주의자들은 기독교 세계관 이념에 의거하여 이 법에 반대하며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교육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다. 긴 시간 투쟁 끝에 사립 학교의 운영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조성국, 2019:39-72). 이와 유사하게 1980년대 초에 기독교 세계관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자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습과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1990년대에 기독교 세계관의 대중화와 함께 이 세계관 이념에 근거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볼 때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목격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원인은 1980년대 한국 기독교계에 시작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정영찬, 2007:96; 조성국, 2019:40).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 (대안)학교와 기독교 (대안)교육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 관련한 학술적 논의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23년간 ‘기독교 교육’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논문 중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을 전체 주제어로 검색하면 모두 954건이 나온다. 그중 많은 논문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목의 경향성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 혹은 기독교 학교와 관련된 저작이나 학술 논문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전제가 확인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박상진은 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 세계관으로 모든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며, “기독교 학교교육은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과 활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2006:93). 조인진은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신앙과 삶이 통합되고 학교와 가정, 교회에 의한 기독교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말한다(2008:417-418). 이정미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학교교육과정은 성경적 세계관과 진리의 통일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010:66). 실제로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대안교육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저작이나 논문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 혹은 근거, 이유가 된다는 전제 위에 논의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신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4. 새로운 문제 제기

하지만 나는 바로 이 신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과연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교육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히 붙잡으면 기독교 교육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실천하는 교육을 독특하게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주는 충분조건인가?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실현해내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다음 논의는 어떤 이유로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 교육을 담보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논하려 한다.

## Ⅲ.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 그 관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

### 1. '세계관'의 본질에 대한 재고

'세계관'에 대한 정의는 이것을 논하는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많다. 많은 정의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James Sire는 "세계관이란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옳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가정)들"이라고 정의한다(1995:20). Albert Wolters는 세계관을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 규정한다(Wolters & Goheen, 2007:2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Bennie van der Walt는 "세계관이란 인간 활동의 기저를 이루고, 그 활동을 형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방향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실재에 관한 일련의 종합적이고 해석적이며 고백적인 관점"이라고 말한다(2002:38). 이상의 세계관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관은 "일련의 전제"이고 "근본적 신념"이며 "신앙고백적 관점"이다. 이 정의들은 세계관의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학자마다 세계관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만 세계관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세계관은 인간 삶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혹은 신념)이며, 단지 보는 것(seeing)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 삶의 인도하며,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Van der Walt, 2002:39-41). 이에 덧붙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세계관의 또 다른 근본적인 특징은 세계관이 본성적으로 품고 있는 '모호성'(vagueness)이다. 세계관은 우리 내면의 의식 심층(혹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신념의 틀이다(양희송, 2019:68-69). 그렇기에 이것은 의식적 수준에서 포착하기 매우 어렵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층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기에 의식적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논하거나 분석하고 그 전모를 밝히기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Jacob Klapwijk는 이론적 수준에서 포착 불가능한 세계관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현대 기독교 공동체(또는 어떤 이슬람 종파나 원시 부족)의 세계관이 삶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이라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해, 어떤 세계관이 우리의 일상 삶이나 철학적 추론보다도 선험적(transcendentale)으로 존재하는 것이라서 언제나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세계관에 대한 최종적이고 이성적으로 적절한 정의를 내놓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1989:41).

세계관이 인간 의식의 심층에서 경험과 추론 이전에 작동하는 것이라면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사

실 자체는 알 수 있다고 해도, 그 세계관이 정확히 어떠한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무의식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세계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분석하는 순간, 그 세계관은 이미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분석된 세계관은 실제 그 세계관이 아니다. Klapwijk는 “만약 당신이 어떤 세계관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J. Vergooht의 말을 빌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관”에 접근할 수 없는 세계관의 본질적인 모호성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1989:42). (1989:42). 우리는 세계관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 의식 수준에서 세계관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세계관이 아닌 “무엇”이 된다. 이런 세계관의 특성을 철학자들은 세계관의 전-이론적(pre-theoretical), 혹은 전-과학적(pre-scientific)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세계관의 모호성이라는 특징은 지금까지 세계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사변적이고 추상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세계관의 발견”을 20세기 개신교 기독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여 중 하나라고 하지만, 지난 세기 동안 세계관 논의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사변에 빠져서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장동민, 2019:429-434). 한국에서도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기독교 월간지 <복음과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른바 “기세 논쟁”이 벌어졌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사변적, 추상적, 현학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아예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세계관이 가진 추상성과 모호성 때문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과 삶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살아가기 보다는 피상적 수준에서 불완전한 이해에 머무는 것도 세계관의 모호성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서 기독교 교육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떤 시점이 되면 필연적으로 막막함과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처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그 자체로 이론적, 분석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의 본질에 대한 재고

‘교육’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세계관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교육이란 말이 지시하는 인간의 활동이 다른 어떤 용어보다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에 대한 정의는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육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여전히 각축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교육’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의미를 규정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R. S. Peters 같은 학자는 교육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긴 역사를 통해서 ‘교육’이란 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하나의 정의로 포괄될 수 없으며 설사 어떤 정의를 내리더라도 그 정의에 포섭될 수 없는 용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2008:19-23). 비록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교육의 공통적인 특성 혹은 본질을 아예 규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모종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다. 교육은 분명 의도를 가진 활동이며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이홍우는 정범모가 내린 교육의 정의를 예로 들어 교육이 가진 '의도성' 혹은 '유목적성'이라는 특성을 설명한다. 정범모는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정의한다.[1] 정범모의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교육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계획적 변화"를 꾀하는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이홍우는 이 정의를 세 가지 요소, "인간 행동", "변화", "계획"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 정의가 품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요소가 "계획"이라고 말한다(2009:53-61). 그는 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서 '계획'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교육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소로서의 '계획'은 간단하게 말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뜻한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 행동에 관한 명확한 설정과 의식(즉, '교육목적')과 인간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론(즉, '교육이론'), 그리고 그 이론에 터한 구체적 프로그램(즉,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58-59).

이를 좀 더 상술하자면, '계획적'이라는 말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르고자 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행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교육목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인간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교육이론)이 있어야 한다. 셋째, 그러한 교육이론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계획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인간행동의 변화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변화된 인간행동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계획적이 않은 인간행동의 변화는 비록 인간행동이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신차균, 안경식, 유재봉, 2017:390).

## 3.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난점

교육이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 활동이라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의식 수준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교육은 의식 수준에서 분명하게 의도된 활동이다. 따라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혹은 의식적 수준에서 인지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두고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온 기획이 품고 있는 문제점과 난점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우리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의식적 수준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교육'을 실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기독 교사들이 경험하는 곤란한 경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정희영과 정희정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

---

1)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의가 행동주의적 신념 혹은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설정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정범모의 정의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세계관적 신념에 근거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중요한 일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적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65.2%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성경과 각 교과목의 통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39.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이 충분한 연구와 분석 없이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질문에서도 입증되는데, 즉 79.1%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일반교재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적 조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사의 재량과 관계되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39.5%의 교사들만이 성경과 각 교과목의 통합 정도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볼 때, 기독교 학교의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그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희영, 정희정, 2005:205).

모든 교육적 활동의 근저에는 세계관적 신념이 작동한다. 세계관이 어떠한지에 따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육 활동은 분명 달라진다. 그러나 이 사실이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건실한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즉 특정한 세계관을 의식한다고 해서, 혹은 그 세계관에 근거해서 어떤 교육적 의도를 가진다고 해서 그 세계관에 일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은 우리가 일상적인 수준에서 가지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에 걸친, 공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고 목적지향적인 대규모 사업(enterprise)이다(Wolterstorff, 2004:68, 191). 세계관에 근거해 있다거나 세계관에 의해 의식적 수준에서 분명하게 포착되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프로그램'(교육이론과 교육과정),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유능한 교사가 없다면 기독교 교육은 구현 불가능하다. 의도적(계획적) 활동으로서 교육에 대한 의미를 알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 Ⅳ. 세계관을 넘어서 - 기독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 1.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철학'의 필요성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세계관을 의식 수준에서 분석하고 체계화 하는 것이다. 앞서 논했던 것처럼 의식적 수준에서 논하는 세계관은 더 이상 세계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것을 분명한 진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Goheen과 Bartholomew는 "세계관을 가진 것과 세계관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세계관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 세계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2007:68). 세계관을 의식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다루려면 그에 맞는 논리적 도구와 형식이 필요하다.

개혁주의 철학자들은 세계관적 신념을 의식적 수준에서 체계화하면 신학이나 철학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Wolters는 세계관과 철학, 신학은 모두 세계와 인생에 대해 포괄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세계관은 이론적 사유 이전에 작동하는 전-과학적(pre-scientific) 혹은 전-이론적(pre-theoretical)인 관점 혹은 신념인 반면, 철학과 신학은 학문적 수준에서 구축된 이론적 사유체계라고 말한다. 세계관은 일상경험의 수준에서 작동하며 직관적이지만, 철학과 신학은 분석적이며 추상적이다(Wolters & Goheen, 2007:35-36). Van der Walt는 세계관과 철학, 그리고 과학의 관계를 다음 그림으로 설명한다(2002: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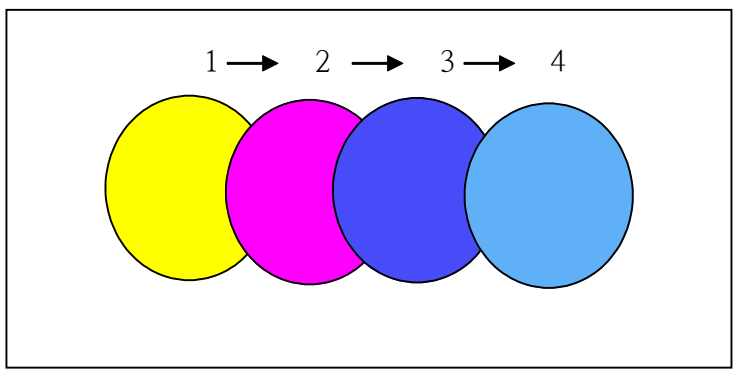


그림 233 종교, 세계관, 철학, 과학의 관계

이 그림에 따르면 세계관은 궁극적 신념인 종교적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철학과 과학 보다 인간 의식의 심층에 존재하면서 철학과 과학의 근거가 된다. 이 세계관을 의식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논하면 곧 철학적 논의가 된다. 이 철학적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각 분과학문이 구성된다. 교육에 대한 이론적 사유체계는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세계관이 분과학문의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먼저 철학적 수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위해서는 세계관과 교육을 매개하는 철학적인 수준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철학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학문으로서 철학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철학은 다른 분과학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Goheen과 Bartholomew에 따르면, "철학은 창조 세계의 구조나 질서를 파악하려는 시도이자 그 질서에 종속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이다(2019:19). 개혁주의 철학자 Andree Troost는 철학을 "사유로 접근 가능한 피조된 사물들의 응집성와 통일성 혹은 전체성에 대한 이론적 사유"라고 정의한다. 철학의 본질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정의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자 John Dewey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는 철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 철학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 **전체성**, **일반성**, **궁극성**을 나타낸다는 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철학은 '포괄적 이해'-다시 말하면 **세계와 삶에 관한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전체**

> **로 모으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것은 이 세계와 삶을 단일한 통일체로 파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원론적 철학에서처럼 수많은 세부사항들을 소수의 궁극적 원리로 파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철학이라는 것은 경험에 관하여 가능한 한 통합되고 일관되고 완전한 전망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다(2015:464, 강조는 필자에 의함).

이상의 정의에서 철학의 본질적 특성을 정리하자면, 철학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전체적 전망과 이해"를 얻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관의 본질적 특성과 비슷한데, 다만 철학은 이론적이고 과학적 수준에서 체계화된 학문이라는 점이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세계와 인생에 대한 다양한 국면들을 개현하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위한 이론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세계와 인생의 전체적 조망을 위한 학문인 철학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사람은 Albert Greene이다. 그의 저작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안학교 혹은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의 최초의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원서의 제목에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번역본의 제목을 위와 같이 정한 것에서 이미 번역자 혹은 출판사의 선이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Greene은 저서 전체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보다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더 많이 논하고 있으며 그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세계관이란 일반적으로 의식 수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설립 기초는 기독교적 철학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이 의식의 밝은 빛 안에서 가르쳐지고 또한 그것이 일련의 개념들 속에서 논리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철학이다. 기독교적 철학에 대한 연구가 성경적으로 정당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살펴 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적 철학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면을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2000:92).

Greene은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 교육이 기반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철학이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우리 나라에 소개되어 많은 독자들이 읽고 참고하였던 이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기독교 철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교육 관계자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세계관'에만 관심을 집중한 것은 흥미롭다. 지난 20년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철학의 조력을 받기 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직접 교육적 문제에 적용하려만 시도한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 실천을 위한 이론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

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독교 철학에 근거하여 교육의 여러 문제들,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급경영, 개별과목의 교육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한 결과를 다시 환류하여 학문적으로 정립한 이론일 것이다. 학문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론은 교육에 대한 보편적, 일반적, 객관적 지식을 확립하려는 노력이다. 교육이 의도적 활동이고, 그것이 사회적 실천이라면 그것을 담보할 과학적 수준의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아직 이런 변변한 학문적 수준에서 교육 이론이 없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이론적 노력들이 기독교 세계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철학적 조망을 근거로 교육의 각 영역별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과제가 될 것이다. 이후의 논의는 우리의 미래 과제로서 기독교적 교육이론을 구축할 때 만나게 될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임시적인 대답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우리가 열렬하게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에 담겨 있는 진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바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는 온전한 교육"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이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만큼이나 종교적이라 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 신념에 근거해 있다는 깨달음은 기독교 세계관이란 개념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이 세계관 개념에 힘입어서 기독교 신앙에 따른 온전한 교육이라는 이념도 생겨났다.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이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란 이념은 "온전한 기독교 교육"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이란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교육과 차별성을 드러낸다.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은 다른 교육과는 달라야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 혹은 "온전한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교육과 다를까?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야 할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론은 그렇지 않은 다른 이론과 어떻게 다를까? 대답은 쉽지 않고 철학자들이 오래 고민하는 문제이다.

기독교 학문은 그렇지 않은 학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Abraham Kuyper이다. 그는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고, "두 종류의 학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된 중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학문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과학이 있다(Wolterstorff, 2004:157-158). 이 논리에 따르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은 그렇지 않은 교육과 반드시 달라야 한다.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이 전제에 따라 독특한 기독교 교육의 모델, 이론 혹은 실천을 추구하였다. 개혁주의 철학자 Wolterstorff는 Kuyper의 "두 종류의 인간, 두 종류의 과학" 논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는 중생한 인간과 중생하지 못한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의 기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있음을 지적한다. 두 종류의 사람을 갈라놓는 '중생'은 그 범위에 있어서 포괄적이지만, 이 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은 동일한 창조의 법에 지배받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공유한다. 그들이 가진 감각적 경험은 중생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고 인식의 과정과 논리적 추론 과정도 중생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동일한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이 공통의 기반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Wolterstorff는 두 종류의 인간이 반드시 두 종류의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매사에 기독교적 학문과 비기독교적 학문 간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충분히 공통의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사안마저 비기독교적 견해와 구별되는 뭔가를 가져야 한다면 오히려 창조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왜곡시켜 드러낼 수도 있다. Wolterstorff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적 독특성(distinctiveness)보다는 기독교적 신실성(faithfulness)을 추구하자고 제안한다. 즉 매사에 기독교적인 차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적 독특성은 기독교 학문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결과여야 한다(2004:174-177).

이것은 기독교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열어보여 주는 것이다.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 아래 살고 있다면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법 아래에 살면서 매사에 비그리스도인의 교육과 구별된 '독특한' 기독교적 교육을 추구한다면 그 시도가 오히려 교육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보다는 말씀에 신실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온당하다. 말씀에 신실한 교육은 외적으로 비그리스도인의 교육실천과 차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에 신실한 교육을 실천하다보면 언제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으로 독특한 교육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실함을 추구한 결과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성과물 혹은 부산물이다. 독특성이 목적이 되어서 강박적으로 추구할 필요는 없다. 교육의 영역에서 신실한 태도가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적 실천이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기독교적 실천이 잘못된 것이라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 교사에게 비그리스도인이 가진 교육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열린 태도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다. 김정효와 이해지의 연구(2011)는 이런 면에서 시사적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기독교적 교육과정개발 이론을 참조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일반 교육과정개발이론에서 그리스도인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활용할 만한 전략들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 기독교적 해석과 전유를 통해 비기독교적 교육이론도 얼마든지 신실한 교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이론적 수준에서 정합적이고 전체적인 조망, 통찰을 가지는 것이다. 기독교 철학,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교육철학은 그런 전체적인 조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Ⅴ. 결론: 세계관을 넘어서 - 기독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이 글을 통해서 나는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규명해보려고 했다.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확산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관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

교 대안교육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최근 20년간 우리가 추구해왔던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 이념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서 기독교 철학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교육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임을 밝혔다.

서구에서는 지난 세기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사변적이고 현학적으로 흘러간 것에 대한 반성으로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설명이 시도되었다. 최근에 등장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대안적 이론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을 논할 때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했어야 하지만 지면의 한계 상 그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남겨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김정효, 이해지 (2011). “기독교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이론의 검토와 그 활용”.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앙과 학문**, 제16권 제1호, 37-60.

김헌수 (1992). **성경적 세계관 자료집**. 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미간행자료집)

박창훈 (2020).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의 발전과 전망”. 한국종교사회학회, **종교와 사회**, Vol.8 No.2, 61-90.

샬롬대안교육센터. [웹사이트]. “기독교 학교”, https://www.caeak.com/service_christianschool.html (접속일: 2024.03.02.).

신차균, 안경식, 유재봉 (2017). **교육철학 및 교육사의 이해**. 학지사.

양승훈 (2018).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회고와 전망”.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통합연구**, 제20권 제1호, 9-34.

양희송 (2018). **세계관 수업**. 서울: 복 있는 사람.

유은희 (2019). “James K. A. Smith가 제안하는 기독교교육 및 형성에 관한 고찰”.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제60집, 153-193.

이은실 (2013). “기독교 교육과정개발 및 재구성 관련 석사학위논문 분석”. 기독교세계관학

술동역회, **신앙과 학문**, 제18권 제1호, 73-98.
이정미 (2010). **기독교적 교육과정 산책**.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이홍우 (2011). **교육의 개념**. 서울: 문음사.
임경근 (2020). **기독교 학교 이야기**. 서울: SFC.
장동민 (2019).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정병오 (2020). **기윤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도서출한 기윤실.
정영찬 (2007).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 고찰**.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정희영, 정희정 (2005). "한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앙과 학문**, 제10권 제2호, 169-211.
조성국 (2019). **기독교세계관 형성을 위한 기독교학교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생명의 양식.
Bolt, J., 이정순 역 (2006). **이야기가 있는 기독교 학교**. 서울: IVP.
Dewey, J., 이홍우 역 (2015). **민주주의와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Goheen, M. W. & Bartholomew, C. G.,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서울: IVP.
Greene, A. E., 현은자 외 2인 역 (2000).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Kasbeek, L. (1981). **기독교인의 세계관**. 서울: 성광문화사.
Klapwijk, J. (1989). "On Worldviews and Philosophy", in Marshall, P. A., Sander Griffioen, and Richard J. Mouw, eds. *Stained Glass: Worldviews and Social Science*.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eters, R. S., 이홍우, 조영태 역 (2008). **윤리학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Sire, J. (199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Troost, A., (2012). *What is Reformation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the Cosmonomic Philosophy of Herman Dooyeweerd*, translated by Anthony Runia, Grand Rapids MI: Paideia Press.
Van der Walt, B. J. (2002). *Liberating Message: A Christian Worldview for Africa*. Potchefstroom: ICCA.
Wolters, A. M. & Goheen, M. W., 양성만, 홍병룡 역 (2007).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Wolters, A. M. & Goheen, M. W., 신국원 역 (2019).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 서울: IVP.
Wolterstorff, N., 신영순, 이민경, 이현민 역 (2004). **샬롬을 위한 교육**. 서울: SFC.